



## 이해찬 총리, ‘나도 출판인 출신’ 소회

출판과 출판계에 각별한 애정 표현  
‘7대 출판국의 지적 전통 보여줄 터’  
…주빈국 개막식 연설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 행사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현지에서 여러 차례 ‘출판인’ 출신으로서 남다른 소회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 특히 지난달 17일 국내 출판인들과 가진 오찬에선 “나의 ‘뿌리’는 출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계 입문전 출판사 ‘돌베개’를 운영하기도 했던 이 총리는 이날 출판계 원로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옛날 그분들로부터 ‘O·K’ 대장을 처리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출판 기법을 배웠다”고 감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또 한국판 개막식에서도 비슷한 소회를 밝혔다. “나도 출판사와 서점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면서 “좋은 책을 내면 ‘느낌’이 오고, 시장에서 그 ‘느낌’이 맞아 떨어지면 희열을 느끼곤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 총리는 또 “비록 국사에 바쁘고, 의정활동에 쫓겨 출판을 잊고 살았지만, 한때 출판인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선 사실이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한국판에 전시된 책을 보며 이 총리는 “책은 ‘사고’의 결정체인 만큼 이곳에 나온 책은 모두 출판인들의 정성과 희열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던 (사)대한출판문화협회 김연호 부회장(한길사 대표)을 향해 “내가 계속 출판을 했으면 김 사장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조크를 던져 주변에 폭소가 일기도 했다.

이해찬 총리는 18일 있는 주빈국판 개막식 연설을 통해서도 개인적 체험을 소개하고, 출판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지난 1970년대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는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감옥에서 만나치 운동에 관한 잉에 솔의 《Die Weie Rose》를 읽으며 독일어 공부를 했다”고 회고, 행사장

에 참석한 독일과 해외 각국 인사들에게 각별한 느낌을 주었다.

이 총리는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본 ‘다라니경’과, 역시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을 찍어낸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일제 35년간 문화적 암흑기를 거치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한국 출판문화는 잠시 그 빛을 감추었다”고 식민지 시대를 돌아킨 그는 “해방후 한국인의 피에 남아 있는 ‘책읽기’의 유전자는 한국을 다시 세계 7대 출판국의 하나로 부흥시켰다”고 자부했다. 이 총리는 또 “멀리 동방에서 온 우리들은 여러분께 우리의 지적 전통과 문화를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인류에게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남긴 괴테와 헤겔의 나라에서 한국의 문학과 철학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자 한다”고 문화적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총리는 책은 인류의 가장 소중한 도구이며 인류의 자기완성을 위한 지렛대”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으로 그는 “디지털 정보 사회의 막대한 정보량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보단 피상적 이해만을 조장하고 서로의 위대한 지적 유산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정신 유산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을 통한 만남은 그 뜻이 깊다”면서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동서양의 문화적 전통이 만나 대화하고 이해하는 위대한 정신적 비단길을 복원하고 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이 총리는 도서전 행사와는 별도로 현지 대학에서의 강연과 교민들과의 만남, 독일 정계 지도자들과의 회동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